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의 중요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역질이 날 때 제일 먼저 ‘혹시 간에 이상이 있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 특히 과음을 한 다음날 아침 헛구역질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은 알코올이 위장점막을 직접 자극하여 생긴 알코올성 위염인 경우이지만 간의 문제일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본다.

간을 보고 흔히 우리는 ‘침묵의 장기(臟器)’라고 부른다. 웬만큼 손상이 나오기 전에는 별로 인체에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병이 발견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본다. 감기처럼 진행된 급성간염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된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체에 필요한 성분을 다시 합성해 관여하는 기관이다. 그뿐 아니라 인체 내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를 해독하고, 오래된 적혈구를 녹여서 담즙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장에 손상이 오면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없어서 인체의 중요한 대사 작용이 약화되기 때문에 쉬 피로하고, 얼굴이 거칠어지며,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간의 이상은 단순한 간 기능 장애도 있고,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등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 간염이다.

종류는 A형, B형, A 형도 B형도 아닌 Non A non B형 간염으로 나눈다. 그 외에도 드문 형태의 간염바이러스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B형 간염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B형 간염이다.

대부분의 간염은 자연스럽게 치유되지만 B형 간염의 약10%의 환자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이중40%는 간경화로 25%가량은 다시 간암으로 발전한다.

간염 초기에는 비열, 두통, 몸살 등의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뒤이어 식욕부진과 구역질이 난다. 그 후로는 개개인에 따라 약간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황달이 온다든지 오른쪽 옆구리의 통증이나 안색이 검게 변한다.

간 검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GOT와 GPT로 이제 웬만한 일반인도 알고 있을 만큼 보편화된 검사이다. GOT와 GPT는 간세포에 많이 들어있는 효소의 일종으로서 간이 정상일 때는 극히 적은 양이 핏속으로 흘러나오긴 하지만 간세포가 많이 상해있으면 다량으로 흘러나와 그 수치가 높아진다. 이수치가 간 기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법이지만, 일상질환이 있거나 내분비 질환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높고, 또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간다. 또한 염증이 없는 간 경변이나 간암에서는 아무리 심해도 GOT나 GPT 수치가 오르지 않으니 검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자기 스스로 병을 가늠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현재까지 B형 감염에 일단 감염되면 이를 완치시킬 수 있는 뚜렷한 치료제는 없다. 치료에 가장 뛰어나다는 인테페론도 치료율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치료는 역시 자기 몸속에 지니고 있는 저항력과 면역력의 극대화로 병을 이겨내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식과 영양식이 필수적이다. 그중 저지방 고단백 음식의 섭취는 간 기능 회복에 꼭 필요한 식사습관이다. 술 담배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며, 적당한 약물도 도움이 된다.

감염치료에 효과적인 소시호탕과 사철 쑥

간에 질환이 있을 때 한약을 복용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일부 양의사의 주장 때문에 환자로부터 가끔 문의 전화를 받는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감염 치료에 한약인 소시호탕(小柴胡湯)을 많이 사용한다. 또 경희대 45주년 기념 동서의학 심포지엄에서 중국 북경중의학원 진 중담 교수는 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거사(去邪)처방과 인체의 면역기능을 증강하는 보익(補益)처방에 활혈(活血)처방을 결합시킨 복합처방으로 감염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간건비탕이 만성B형 감염에 90.5%의 치료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발표된 적도 있다. 생간건비탕의 주 약제는 인진이라고 부르는 사철 쑥이다.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우니 사철 쑥으로 차를 만들어 먹는다면 간 기능 개선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간에 부담을 줄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한약제도 물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약재를 쓰는 한의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만을 고라 처방된 한약은 오히려 병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정 일무박사팀은 차전자에서 추출한 'NP77A' 라는 성분이 실험적으로 B형 바이러스를 대량 파괴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차전자는 우마차가 거름을 흘리며 다니는 지저분한 길에 주로 자라난 다해서 한방에서 차전초로 불리는 질경이의 씨다.

복용법은 적당량의 질경이 씨를 타지 않을 정도로 볶은 후 2리터 정도의 끓는 물에 큰 스푼 한 개 분량의 볶은 질경이 씨를 넣은 후 색깔이 노르스름할 때까지(약 10분 정도) 끓여서 보리차 마시듯 수시로 마시면 된다. 이렇게 달인 차를 B형 감염환자가 한 달 가량만 마신 결과 혈청 생화학적 검사(GOT, GPT)에서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고 정 박사는 설명하고 있다. 간의 회복에도 역시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찾아낸 생약재가 더욱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오해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한약을 처방하려고 하는 경우 간혹 환자들 중에는“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한약 먹지 말라던데요.”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한약을 복용하면 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한때 간 질환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의학 논문 중에서 간 질환의 원인 중 일부가 한약복용이었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에 소개됐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연구결과는 구체적인 한약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한약이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한약 중 부자, 마황 등은 간에 기질 병변이 있는 경우 간장에 손상을 가져온다.’와 같이 한약재별로 그 영향을 달리 표현했어야 했다.

이로 인해 수백 가지 한약 중 극히 일부가 간장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마치 한약 전체가 간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오해를 산 것이다. 이는 일부 항생제를 복용하면 신장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마치 항생제가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내에서 한약을 복용하면 간에 나쁘다는 인식이 팽배한 반면 일본 등에서는 한약이 오히려 간염 등 간 질환의 치료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국내의 한의과 대학병원에서도 만성간염 등 간 질환에 한약을 처방하여 높은 치료율을 얻고 있다. 또한 현재는 대부분 한약재가 규격화가 되어 식약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농약, 중금속, 독성 등 쌀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통해 믿고 복용할 수 있는 한약으로 거듭 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한약이 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일까?

한약 중에서 주로 독성이 강한 부자, 초오, 반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약들도 독성을 제거하는 법제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물론 간에 기질적인 병변이 있을 경우, 한약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간은 모든 약물의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약물이 간장에서 대사되고 해독되므로 간 질환이 있을 때에는 약물선정과 용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한다면 만성간염 등의 간 질환이라 할지라도 전문 한의사의 정확한 진찰과 처방을 받아, 한약을 복용, 치유효과를 높일 수 있다.